

예비보육교사들의 실습경험에 대한 이야기

-보육교사교육원을 중심으로-

The Stories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Practicum Experiences : Focusing on pre-service Childcare Teacher Training Centers

임경옥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Kyung-Ok Lim(lim0006@swc.ac.kr)

요약

본 연구는 보육실습을 마친 3급 예비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실습에 대한 경험과 경험이 남긴 의미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3급 보육교사들의 효율적인 보육실습지도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경기소재 P 보육교사교육원과 S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16명을 대상으로 개인 면담을 실시한 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육실습은 실습기관 선정의 어려움, 실습준비 부족, 교육과정과 현장의 연계 불일치, 실습의 스트레스, 영유아 지도의 어려움, 현장의 현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실습의 경험이 남긴 의미는 보육교사로서 자신의 진로 결정 및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끼쳤으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논의에서는 도출된 주제를 중심으로 보육실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예비보육교사 | 보육실습 | 질적 분석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racticum experiences of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level 3) and their meaning and set a direction for efficient childcare practicum for the level 3 childcare teachers. For this, 16 trainees from 'P' Pre-service Childcare Teacher Training Center and 'S' Pre-service Childcare Teacher Training Center in Gyeonggi-do were investigated, and there was an interview with them for qualitative analysis. The study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This study is showed that child care and teaching practice is the difficulty of training institutions selected, lack of preparation exercise, disagreement between training courses and related field, the stress of exercise, difficulties in infants teaching and experience the reality in the field.

In terms of the meaning of childcare practicum, it helped the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set their career path and establish values. In addition, it was helpful in building practical knowledge. In addition, there was a discussion on how to operate the childcare practicum in a well-organized and systematic manner, focusing on the derived topics.

■ keyword : | Pre-service Childcare Teachers | Childcare Practicum | Qualitative Analysis |

* 이 논문은 2015년도 수원여자대학교 연구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 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5년 12월 23일

심사완료일 : 2016년 01월 26일

수정일자 : 2016년 01월 25일

교신저자 : 임경옥, e-mail : lim0006@swc.ac.kr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기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보다 세심한 교육적 배려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영유아들을 지도하는 보육교사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배출되어야 한다. 이는 보육의 질이 보육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보육의 질 및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육인력의 전문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보육인력의 자질에 대한 논란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보육현장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집중관심을 받으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는 유아교사와 달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과 아울러 인성검사 및 사전교육의 부재로 인하여 전문성 측면에서 취약성을 벗어 날 수 없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이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여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 과정의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의 한 중심에 서있다[1].

현재 3급 보육교사는 67개소의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양성되고 있으며, 2015년 3월말까지 3급 자격증을 취득한 보육교사는 97,32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2]. 그리고 95%정도가 민간 어린이집(47%) 및 가정어린이집(48%)에서 근무하고 있다[3]. 그리고 전체 보육교사의 약 40% 이상이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의 보육교사[4]에 의해 보육현장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 중 현직 종사비율이 1급, 27%, 2급, 28%에 비해 3급은 월등히 높은 51%이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졸 학력의 꼬리표[6]는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짧은 교육기간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기준으로 인하여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교과목 수가 많은 데 비해 교육기간이 짧아 고등교육이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교육이 부족하며, 전임교수의 수, 교재의 질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받고 있다[7]. 이와 관련하여 김진숙(2003)은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보육시설장의 인

식에서도 3급 보육교사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 보육신념, 자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현장실습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8]. 우지선(2009)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고, 실습경험이 있는 예비보육교사 일수록 관찰자, 교수 및 연구자, 정서적 지원자, 생활지도자, 관련적 역할 수행자로서의 역할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핵심적 역할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실습은 예비보육교사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예비보육교사들은 실습을 통해 부분적인 교사의 역할을 경험하며, 현장의 구성원들과 다양한 상황을 체험한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를 보육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접목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신의 적성을 확인한 후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보육실습은 예비보육교사들에게 보육현장을 통하여 경험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현장에 필요한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고, 보육교사로서의 책무와 전문성을 키우며, 자신의 교사관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육실습은 교육현장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적인 보육시설 현장을 접목하여 다양한 역할을 체험해 보는 기회이며,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일종의 통과리레라고 할 수 있다[10]. 더불어 실습은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 예비 보육교사가 이수한 교과목, 훈련, 경험 등을 종합하고 반영하면서 배울 수 있는 현장의 수련과정이다[11].

그러나 이러한 보육실습의 긍정적 효과에 반하여 예비 보육교사들은 실습기간 동안 다양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정미·김은정(2009)의 연구에 의하면 실습과정 중 보육프로그램 운영과 일상 지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또한 예비보육교사의 실습과 관련된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바람직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 부족, 교수방법 실행의 미숙, 일상생활 지도방법의 미숙 등의 교수 실체에 관련된 전공지식과 능력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그러므로 이러한 일련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3급 보

육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효율적인 보육실습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 보육교사들은 타 교과목에 비해 보육실습 교과목을 95.7%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급 보육교사의 보육실습과 관련된 논문은(이부미·임현숙, 2013[15] 이주하, 2011[16] 조성연, 2006[17])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3급 예비보육교사들이 보육실습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재조명하고 탐색하는 것은 보육실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향 제시와 더불어 의의가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교사교육원 양성과정을 통하여 배출되는 3급 보육교사들의 보육실습 경험에 대한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전문성 함양을 위한 보육실습을 진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보육교사들은 실습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는가?

둘째, 예비보육교사들의 실습경험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4주간의 보육실습을 경험한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보육교사교육원 양성과정에 재학 중인 교육원생 16명이다. S 보육교사 교육원은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부설 교육원이며, 연구자가 양성과정 교과목을 매해 강의하고 있는 곳으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원한 8명이다. 그리고 P보육교사교육원은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보육실습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자들 중 8명이 자원하여 면담에 참여하였다.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습기관 유형별로 연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S와 P 보육교사교육원의 실습기관이 가정어린

이집 79%, 민간어린이집 16%, 기타 5% 로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연령별로 보육실습에 대한 경험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2개의 교육원에서 20대 4명, 30대 4명, 40대 4명, 50대 4명으로 심층면담 하였으며, 모두 여성이다. 연구 참여자의 인적사항과 실습기관의 유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

실습생	학력	연령	실습연령	기관 유형	실습생	학력	연령	실습연령	기관 유형
A - 1	고졸	23	만3세	민간	C - 1	전문대졸	40	만4세	법안단체등
A - 2	고졸	25	만4세	민간	C - 2	고졸	44	만2세	가정
A - 3	고졸	27	만3세	민간	C - 3	고졸	45	만1세	가정
A - 4	고졸	28	만2세	가정	C - 4	고졸	48	만2세	가정
B - 1	전문대졸	32	만4세	사회복지법인	D - 1	고졸	51	만1세	가정
B - 2	고졸	34	만4세	민간	D - 2	고졸	52	만0세	가정
B - 3	고졸	38	만1세	가정	D - 3	고졸	54	만0세	가정
B - 4	고졸	39	만1세	가정	D - 4	고졸	55	만1세	가정

2.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4주 동안의 보육실습이 끝난 S와 P보육교사 교육원생 중 16명을 대상으로, 보육실습에서 얻은 경험을 심도 깊게 연구하기 위하여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Steinar과 Svend(2009)가 제시한 반 구조화된(Semi- Structured) 면담 질문을 참고하여 질문지를 작성한 후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18]. 질문지 내용은 본 연구자가 보육실습 지도를 한 경험과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육실습을 마친 후 평가회를 통해 토론내용 및 실습과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먼저 8문항의 면담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 후 실습지도 경험이 있는 보육학과 교수 2인 및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경험이 있는 주임 보육교사 2인에게 이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토를 의뢰하여 보육실습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 부분과 영유아지도 시 특별히 어려웠던 점을 삭제하고 수정·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6문항으로 구성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예비보육교사 16명을 만나서 본 연구에

대한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면담 5일 전 E-mail을 통해 면담 질문에 대해 알려 주었다. 면담은 S 보육교사교육원은 2014년 11월 3일부터 28일 까지 4주 실습이 끝난 후 2014년 12월 5일부터 2015년 1월 27일 까지 진행되었다. P 보육교사교육원은 가을학기에 모집된 교육원생들의 실습이 5월에 실시되므로 2015년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습이 완료 되었으며, 면담은 2015년 6월 15일부터 2015년 7월 10일 까지 이루어졌다. P 보육교사교육원생들 중 면담에 참여한 대상자들과는 사전에 라포 형성을 위한 만남이 2회 진행되었다. 실습에 대한 1회의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였다. 모든 면담 내용은 예비보육교사들의 동의를 얻어 객관성과 자료보존을 위해 녹음을 하였고, 전사된 면담내용은 A4용지, 글자크기 11, 줄 간격 160의 형식으로 총 51장 분량이 되었다. 반 구조화된 면담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면담내용

문항	질문
1	보육실습을 통하여 얻은 가장 큰 경험은 무엇인가요?
2	교육과정과 실습현장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3	보육실습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4	보육실습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무엇, 혹은 어떤 것 인가요?
5	보육실습을 하면서 영유아지도와 관련하여 느낀 것이 있나요?
6	보육실습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3. 자료 분석

Bogdan과 Biklen(1982)이 제시한 연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이용하여 전사된 자료를 부호화(coding)하고 유형화 한 후 분석하였다[19]. 즉, 녹음된 면담 내용을 연구 참여자의 말 그대로를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에 기록한 후 자료를 전사하였고, 전사된 내용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의미 있는 단위와 문장을 추출하여 부호화 한 후 각 내용에서 공통의 속성으로 묶여질 수 있는 내용은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범주화 작업을 완료한 후 도출된 공통적인 요소들을 모아서 하부 주제(sub-theme)를 정하였고,

이를 다시 정리 하여 주제(theme)로 선정한 다음 주제들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범주화 시켰다. 추후 확인 면담은 연구의 결과를 문서로 요약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전달하였고, 모든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신을 받았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Padgett(1998)의 제안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20].

첫째, 면담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보육실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각 연령별로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예비보육교사를 선정하였다.

둘째, 자료 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보육실습 지도경험 및 질적 연구 실적이 있는 유아교육 박사과정을 수료한 현직 시립 어린이집 원장 2명이 모든 자료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부호화 과정에 참여하였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통합된 관점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결과 해석 내용을 보내고, 그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후 확인 면담을 통해 참여자 확인 작업을 하므로 연구자가 가진 주관성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넷째, 대학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학 전공 대학교수에게 전반적인 피드백을 받음으로서 동료검토(Guba, 1985)를 실시하였다[21]. 이는 양적연구에서의 평정자 간 신뢰도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에 대해 외부의 점검을 가능하게 한다.

III. 연구 결과

보육실습을 마친 예비보육교사 중 S와 P 보육교사교육원생 16명의 면담 자료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문단별로 나타나는 소주제를 기록하였다. 처음 분류되어진 소주제는 실습과정에서 경험한 내용과 관련하여 6개, 보육실습 경험의 의미와 관련한

여 5개로 분류 되어졌다. 그런 후 범주별로 비슷한 범주들을 묶고 다시 묶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 주제를 다시 범주화하여 2개의 주제로 통합하였다.

표 3. 보육실습에 대한 경험 및 의미

주제	하위주제	주요코드
보육실습 경험	엇갈린 이 중주	실습기관 선정의 어려움, 실습준비 부족, 교육과정과 현장의 연계 불일치
	불협화음	현장의 현실, 실습의 스트레스, 영유아 지도의 어려움
보육실습 경험의 의미	새로운 나	적성과 자질 검증, 가치관 정립
	실천적 지식을 형성 한 나	영유아 특성 이해, 상호작용 방법, 영유아 지도기술 습득, 수업진행의 실제

1. 보육실습 경험

1.1 엇갈린 이중주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을 나가기 전 첫 걸음이다. 보육교사 교육원생들은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규모가 있는 민간 어린이집으로의 실습을 원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정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실습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음을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실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상당수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서의 실습은 질 낮은 보육과 관련된 악순환이 연결되는 고리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친한 친구의 남편이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실습했어요. 실습지를 구하지 못해 인맥을 활용한 거죠. 보교원 출신은 원칙적으로 안 받는다고 하던데요(B-1. 2015. 06. 22).

견학 때 마다 봉사를 하고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어린이집이라 쉽게 실습지를 구할 수 있었는데 동기들은 괜찮은 실습지를 구하지 못해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실습을 간걸로 알고 있어요(C-1. 2015. 07. 02).

7 곳의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보교원에서 실습 가는거라고 했더니 “우리는 보교원 출신은 안

받아요”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눈물이 팽 돌았어요. 실습지 땀에 맘 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가정 어린이집으로 실습을 결정해야 했습니다(C-4. 2014. 12. 22).

실습은 보육교사들이 교사로서 거듭날 수 있는 준비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습과 관련된 보육교사 교육원과 현장의 준비가 서로 부족하여 야기되는 문제를 겪게 되었다. 특히 준비되지 못한 지도교사의 역할 부재로 적절한 실습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당황스럽고 힘들어함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교육원에서 과제로 보육일지를 써보고 지나갔어요. 현장에서 보육일지 쓰는데 준비가 잘되지 않았다는 점과 사전에 보육일지에 대한 연습과 제출용보다는 체크를 해서 수업진행 시 기본도식을 잘 익혀서 실습지에 간다면 좋겠어요(A-1. 2015. 06. 15).

보육일지를 쓰는 과정에서 지도교사가 어떤 기준에서 써야 되는지를 몇 번씩 반복하면서 시간적으로 부족하여 한꺼번에 몰아 써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어려움이 있었어요(A-4. 2014. 12. 09).

지도교사에게 제대로 된 수업이나 교구 제작에 대해 정확한 전달을 못 받고, 피드백조차 주지 않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하고 늘 생각했어요. 나의 부족한 점과 틀린 점들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면서 무리한 과제를 주어서 힘들었어요(C-3. 2014. 12. 18).

보육현장은 실제 이론과 다른 현상들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실습과정에서 현장을 처음 경험하면서 보육계획안 대로 시행되지 않는 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현장이 연계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운 이론과 실제 현장을 적절하게 연결할 수 없음도 실감하게 된다. 이로 인해 계획과 현실사이에서 배운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보교원에서 배울 때는 분명 표준 보육과정으로 현장에서 교육한다고 배웠는데 현장에서 보니 표준보육과정에 맞는 계획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교육, 그냥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을 뿐인 것 같았거든요(A-4. 2014. 12. 09).

교육원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배워 익혔는데 실습현장에서는 영아들을 케어 하는 일이 우선이라 사실상 배운 것을 현장에서 활용하는 일은 별로 없어 아쉬웠습니다(C-4. 2014. 12. 22).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어요. 계획안은 근거자료일 뿐이었고,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나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장에서 교육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실행하는 모습은 시간에 맞게 짜여진 제목뿐이었어요(D-4. 2015. 01. 27).

1.2 불협화음

예비보육교사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사전에 획득한 이론적 지식을 실습을 통해 체험해보고, 교사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함과 동시에 역량을 키워나간다. 그리고 교사들이 영유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반추해보기도 한다. 이들은 보육실습경험을 통해 점심시간의 모습,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보육, 영유아들을 함부로 대하는 자질을 갖추진 못한 교사의 모습 등 실습의 소중한 경험을 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을 먼저 경험하고 있었다.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는 시간에 영유아들이 방치되고 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프린트하고 부착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 시간에 한번이라도 더 눈 마주쳐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안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누구에게 평가받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B-1. 2015. 06. 22).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것인데 꼭 때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눈빛과 말투, 차별대우, 터치의 강

도, 교사의 선행 따돌림, 영유아들이 보는 앞에서의 교사들 간에 폭언, 고성 등 영유아들을 충분히 공포에 몰아넣는 행위들을 경험했고, 그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재정문제와 교사채용의 어려움으로 아동중심이 아닌, 교사의 능력도 자질도 아닌, 급여가 적은 교사를 채용하는 현실을 직시 할 수 있었어요(B-2. 2015. 06. 30).

교사들의 인성이 거의 밑바닥이었어요. 원장선생님이 계실 때와 안 계실 때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이중인격을 보인 교사들 대부분이 보육교사 1급이거나 유치원 정교사 1급의 베테랑 교사들이었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C-1. 2015. 07. 02).

이건 점심시간이 아니라 무슨 전쟁터였어요. 영유아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에 이해는 하나, 교사들의 식사시간은 웬지 서글퍼졌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코로 들어가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D-1. 2015. 07. 07).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실습의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청소, 무리한 교재교구제작 요구 등으로 인하여 실습기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시설장과 보육교사간의 갈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과정 등이 실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실습생들은 실습점수 가 염려되어 거절하지도 못하고 있음을 이들의 증언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었다.

실습생들에게 과출부처럼 실습과 관련 없는 일을 시키는 것, 예비보육교사로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 실습비는 실습비대로 받고, 밥값은 밥값대로 받고 일은 일대로 시키고 보육실습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나다(B-3. 2014. 12. 12).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청소, 설거지, 심부름 등 등 노동의 연속이었다. 실습을 시작하면서 수업에 대한 기대, 지도교사로부터 배우게 될 노하우에 대한 기대, 세

런되고 따뜻한 상호작용에 대한 기대는 첫날부터 무너졌고 끝까지 복구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하려고 일년간 공부를 했나 하는 회의를 느꼈고, 통합교육 시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힘들었어요(B-4. 2015. 01. 13).

원장님과 교사들 간의 미묘한 신경전 및 눈치를 봐야 하는 것들, 그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행하는 말투나 행동에서 안 봐야 할 것 들... 학대정도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상호작용에서 그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상실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렵고 힘들었어요(C-1. 2015. 07. 02).

실습생이 '을'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교재 교구 제작을 요구해 육체적으로도 참 힘들었어요. 이력서에 자격증이 많다는 이유로 봉 잡았다는 원장의 표정과 각 반의 게시판, 투약함, 반패 등을 요구하는데 무척 고민하다 시간이 부족해 다 못할 것 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원장 선생님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라고 하시는데 아차 싶었어요. 이러다 실습점수를 최하점 받는 건 아닌지...불안감에...실습이 너무 힘들었어요(C-3. 2014. 12. 18).

보통 가정 어린이집은 형식상 일일 계획안을 해 놓지만 같은 실습생 동기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실천을 하지 않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습일지에는 계획안대로 작성해야 하는게 한 달 내내 스트레스였어요(D-2. 2015. 07. 10).

영유아지도는 예비보육교사들이 실습을 나가기 전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일수도 있다. 현장에서도 경험이 부족한 이들은 영유아 지도에 대한 교수방법의 적합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유아들의 예기치 않은 반응들과 행동에 대한 통제 및 적절한 훈육 방법에 대하여 준비되지 못한데서 오는 자신감의 결여와 어려움도 함께 호소하고 있었다.

같은 상황하나에 교사 여러 명이 서로 자기주장을 내

세우며 각각 다른 말로 가르치려 할 때 당황스러웠다. 밥을 잘 먹지 않는 영아가 숟가락만 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교사는 다음 활동을 위해 먹여주라, 옆 반 교사는 버릇 된다. 도와주지마라, 원장님은 숟가락 뺏어서 밥을 먹이지 마라.... 어떡해야할지 몰랐어요(A-2. 2015. 06. 25).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만화도 모르고 내 경직된 말투로 인해 대화가 일치하지 못하고 실습생이라 그런지 담임교사들의 말은 잘 들으면서 내말에 반응하지 않거나 무시했어요(B-4. 2015. 01. 13).

아이와 상호작용을 할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하는데도 아이들은 말대답으로 선생님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때도 있었습니다(C-4. 2014. 12. 22).

2. 보육실습 경험의 의미

2.1 새로운 나

보육실습은 예비보육교사에게 교사로서의 적성과 자질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나는 누구인지? 내가 정말 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보육교사라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자기 진로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보육실습은 자신의 진로를 수정 하게함과 동시에, 보육교사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보육교사의 어려운 현실을 보고 와서 그런지 오히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보육실습은 배운 것도 있지만 적성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주었어요(A-4. 2014. 12. 09).

어린이집 교사로서 자질이 조금이라도 갖추어 졌는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힘들어 여러모로 마음이 무거워요.(A-1. 2015. 06. 15).

어린이집 교사가 내가 진정 원하던 일인지, 아이가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 지...(D-3 .2015. 01. 06).

보육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정립된 교사는 영유아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 실습을 하는 동안 예비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의 각오와 사명감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한다. 즉, 자신에 대한 성찰적인 태도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차후에 보육교사직에 대한 가치와 확신을 가지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보육교사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기반성을 통해 자아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처음 바른 신념을 가졌어도 대충 아무나 할 수 있는 보육교사라는 이미지가 보육교사인 스스로에게도 각인 되어져, 제2, 제3의 대충 보육교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나 자신을 되돌아보았어요(C-2. 2015. 07. 03).

급 반성의 시간... 나를 다시 체크해보는 시간... 현재의 선생님처럼 하지 말아야지...하고 반성하는 시간(D-1 2015. 07. 07).

대충알고 있었던 열악한 보육환경이었는데 실제로 확인하고 생활하면서 저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절실히 느꼈어요. 비록 저 한사람이지만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사가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D-4. 2015. 01. 07).

2.2 실천적 지식을 형성한 나

예비보육교사들은 영유아들의 특성에 대한 이론을 실제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이런 경험을 통하여 영유아들의 특성을 이해하게 된다. 영유아들과의 만남으로 편견 없이 수용하는 자세와 시각이 바뀌게 되고, 영유아들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교사로서 성숙해져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이들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발달이 늦은 아이에게는 강요하거나 보치지 않으면

서 많이 기다려주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아이들을 일상 생활 속에서 어떠한 생각, 행동에도 반응해주고 격려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A-3. 2014. 12. 05).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지 막연하기만 했던 것이 보육실습을 통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각 연령에서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B-2. 2015. 06. 30).

영아라 쉽게 생각했는데 영아의 월령과 발달적 특성 차이를 고려해서 영아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D-2. 2015. 07. 10).

실습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간 예비 보육교사들에게 영유아들과 역동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상호작용은 쉽지 않다. 그러나 실습 지도교사들의 모델링을 통해 영유아들과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움으로, 보육교사로서 역할수행을 갖추어 나감과 동시에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었다.

실습하면서 영아들이 하는 행동이나 표현에 대해 상호작용하거나 생활지도 방법 등에 대해 경험했고, 영아들을 케어 하는 방법들과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웠습니다(B-4. 2014. 12. 15).

영유아 연령대와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실습기간동안 유아들과 생활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경험이었어요(A-2. 2015. 06. 25).

실습이 대체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좋은 선생님을 만나 영아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가슴에 담을 수 있음이 좋았어요(B-3. 2014. 12. 12).

영유아들의 돌발행동에 대한 지도는 경력이 있는 보육교사들에게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실습과정에서 교사들을 통해, 영유아들을 상황에 맞게 지도하는 방법을 습득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긍정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하겠다고 하는데 누굴 먼저 주어야 하는지, 먹기 싫다고 하는 유아는 억지로 먹여야 하는지, 아님 그만 먹으라고 해야 하는지 배우지 않아 잘 몰랐는데 지도교사를 통해 지혜롭게 지도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A-3. 2014. 12. 05).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배우지 않아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물고, 얼굴에 상처를 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아이들이 토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은 그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잘 정리하더라고요(D-3. 2015. 01. 06).

연구 참여자들은 실습 지도교사의 수업진행을 통해 보육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영유아를 지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이는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서 배웠던 이론이 현장을 통해 실제화 되는 과정을 거쳐 실천적 지식을 가지게 됨으로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동시에 실습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체수업이 발생하였을 때 체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지도교사가 수업하는 동안의 과정과, 관찰일지, 원아수첩 등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배웠어요(A-3. 2014. 12. 05).

주간, 일일, 부분 수업 등으로 세부화 되는 하나의 맥을 감지하였고, 유아들이 선호하는 놀이는 다양하고 개인차가 크다는 것과, 안전사고도 교사가 전체 흐름과 움직임을 감지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어요(B-1. 2015. 06. 22).

영아들은 그냥 먹고 자고하는 부분에만 신경을 쓰는 줄 알았는데, 어떤 놀이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나 재료를 수업을 할 때 영아들의 반응이 더 좋은

것을 배웠어요(C-2. 2015. 07. 03).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예비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보육실습에 대한 경험과 보육실습의 경험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보육실습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보육실습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보육실습에 대한 경험은 ‘엇갈린 이중주’, ‘불협화음’이라는 요소가, 보육경험의 의미는 ‘새로운 나’, ‘실천적 지식을 형성한 나’라는 요소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보육실습 경험과 관련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실습을 시작하기 전 실습지 선정에서부터 실습을 경험하는 과정까지 현장의 현실을 통해 엇갈린 불협화음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보육교사들은 실습지 선정과정에서 보육교사 교육원을 통해 양성되는 3급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 원하는 실습지를 구하지 못해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으로 실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질 높은 보육실습을 통해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시급한 것은 3급 보육교사들의 실습지가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보육시설에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적인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육교사 교육원과 연계된 실습지 확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습준비에 대한 부족은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 교육원과 현장에서는 실습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교육원에서는 실습을 나가기 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실습 지도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사로 인해 실습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는 실습기관의 교사들 중 약 20%가 사전준비 없이 교육실습생들을 맞이한다는 박경옥외(200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22]. 그러므로 효과적인 실습지도를 하기 위해서 실습지도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23].

교육과정과 현장의 연계 불일치는 교육원에서 습득한 이론과 현장에서 겪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대립됨으로 실습생들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실습이 대부분의 교사양성 대학과 각 현장 실습기관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박은송(201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24]. 그러므로 보육교사교육원에서도 이론과 현장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현장과 이론을 접목할 수 있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기반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요구된다.

현장의 현실은 예비보육교사들에게 희망보다는 실망을, 기쁨보다는 아픔을 안겨주었다. 부적절한 교사들의 모습과 아동중심이 아닌 교사중심, 보육과정과 다른 실습일지의 기록, 과도한 청소와 무리한 교재교구제작에 대한 요구는 이들의 실습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박성미(2002)의 예비보육교사들의 실습활동은 정리정돈 및 청소, 간식 및 급식지도, 잠무보조 순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져 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다는 연구결과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25]. 그러므로 보육실습이 보다 충실화 될 수 있도록 표준보육실습 지도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육실습의 경험이 주는 의미는 적성과 자질을 검증하고 가치관을 정립할 기회를 가지므로 교사로서의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실천적 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의미를 남겨 주었다. 즉, 현장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적성과 자질을 재발견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진로를 바꾸거나 보육교사로서 자리매김을 하기도 한다. 이는 예비 보육교사들은 보육실습경험을 통하여 대부분 자신의 진로를 선택(Poulou, 2007)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6]. 또한 보육실습은 보육교사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육교사로서 가치관을 새롭게 다듬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교사로서의 가치관이 영유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느끼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됨과 아울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바람직한 교사상을 가슴에 새겼다. 이는 실습이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다는 이원령(2010)의 연구와 흐름을 같이한다[27]. 그러므로 보육교사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습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보육실습 경험은 영유아와 관련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한 나'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실천적 지식형성과 관련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배운 지식과 지도교사를 통하여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관련된 업무 수행기술을 융합하여 현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의 탐을 쌓았다. 이는 보육실습 경험을 통하여 예비보육교사들은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는 염지숙(2011)의 연구결과와 흐름을 같이한다[28]. 교사의 전문지식은 이론이 아닌 현장교육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실천적 지식이고, 이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식 형성과정의 한 방법이 저널쓰기를 통한 경험 재탐색, 해석 이라고 할 수 있다[29]. 그러나 3급 예비보육교사들은 반성적 저널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보다 심화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교육원에서도 사전 실습교육을 통하여, 반성적 저널쓰기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 특성에 대한 이해는 보육실습을 경험함으로써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와 발달이 늦은 아이에게 편견 없이 대하는 교사를 통해 다양한 영유아의 특성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영유아들의 특성에 대하여 현장에서 실습 및 지도를 해 봄으로써 다양한 영유아들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김남연과 조형숙(2009)의 보육실습이 영유아를 이해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30].

상호작용방법과 영유아 지도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은 지도교사를 통하여, 적절한 중재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보육교사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시켜 줄 뿐 아니라 보육교사로서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사료된

다. 그러나 예비보육교사들은 상호작용방법 및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행동과 상황에 맞는 지도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습을 나갔다.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습과정 중 유아행동지도 전략 등에 대해 어려움을 보여주었다는 이희경(201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31]. 따라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에서 영유아 상호작용 및 지도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교과과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보육교사 교육원의 특성상 다양한 보육시설에서의 실습이 용이하지 않아 대부분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제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3급 예비보육교사와 보육실습 담당 지도교사 및 원장들의 이야기를 함께 담을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보육실습의 효율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이미정, “보육교사자격제도 개선방안,” 한국보육학회지, 제9권, 제4호, pp.113-128, 2009.
- [2] <http://childcare.go.kr>.
- [3]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4] 이주하, “보육교사에 작용하는 전문성 이데올로기 비판 : 보육교사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제32권, 제1호, pp.1-16, 2011.
- [5] <http://childcare.go.kr>.
- [6] 이주하, “보육교사에 작용하는 전문성 이데올로기 비판 : 보육교사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제32권, 제1호, pp.1-16, 2011.
- [7] 김은설, 안재진, 최윤경, 김의향, 양성은, 김문정,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육아정책 개발센터 보고서, 2009.
- [8] 김진숙, *양성기관별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보육시설장의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9] 우지선, *보육실습생의 역할에 대한 현직보육교사와 예비보육교사의 인식비교*,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10] 천혜정, *영아반 보육실습 체험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1] J. M. Machado and H. M. Botnarescue, *Student Teaching: Early childhood practicum guide*(7th ed.). Cengage Learning, 2011.
- [12] 이정미, 김은정, “예비 유아교사들이 경험한 교육 실습과 보육실습의 차이,”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4권, 제6호, pp.303-325, 2009.
- [13] 김선영, 서원경, “보육실습 현장에서 실습생이 들려주는 스트레스와 대처,” 아동학회지, 제31권, 제2호, pp.135-150, 2010.
- [14] 김남균, *보육교사 자격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5] 이부미, 임현숙, “보육교사 되어 가기: 보육교사교육원을 중심으로,” 열린 유아교육연구, 제8권, 제1호, pp.95-135, 2013.
- [16] 이주하, 이주하, “보육교사에 작용하는 전문성 이데올로기 비판 : 보육교사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학논총, 제32권, 제1호, pp.1-16, 2011.
- [17] 조성연, “예비보육교사가 인식한 보육실습과 실습지도교사의 역할 - 3급 보육교사양성과정을 중심으로-,” 보육정책연구, 제2권, 제1호, pp.45-70, 2006.
- [18] K. Steinar and B. Svend, *Interviews: Learning the Craft of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2nd Edition*. California: Sage, 2009.
- [19] R. C. Bogdan and S. K. Biklen,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Boston: Allyn and Bacon, Inc, 1982.
- [20] D. K. Padgett,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1998.
- [21] E. G. Guba, *The alternative paradigm dialog*

In E. G. Guva (Ed.), The paradigm dialog,
Newbury Park, CA: sage, 1985.

- [22] 박경옥, 유재연, 김호연, “교육실습에 대한 특수 교사의 인식 및 실태 조사,” 특수교육학연구, 제42권, 제4호, pp.277-292, 2008.
- [23] 이경진, 최진영, 장신호, “초등교사의 핵심역량 수준 및 교직경력별 핵심역량 수준 차이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제25권, 제3호, pp.219-240, 2009.
- [24] 박은송, “교육실습에 대한 예비특수교사의 인식 변화 분석,” 중북·지체부자유연구, 제54권, 제4호, pp.113-132, 2011.
- [25] 박성미, “보육실습에 대한 예비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조사,” 영유아보육연구, 제8권, 제12호, pp.12-143, 2002.
- [26] M. Poulou, “Personal teaching efficacy and its sources: student tteachers’ perceptions,” Educational Psychology, Vol.27, No.2, pp.191-218, 2007.
- [27] 이원령, “예비특수교사들의 아동지도 실습에 대한 사례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제26권, 제4호, pp.273-292, 2010.
- [28] 염지숙, “교육과정 실행 주체로서의 유치원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유아교육학논집, 제15권, 제6호, pp.295-310, 2011.
- [29] 안지령, “예비 유아교사들의 보육실습 경험 이야기-반성적 내 러티브를 통하여-,” 유아교육연구, 제3권, 제2호, pp.165-184, 2014.
- [30] 김남연, 조형숙, “보육실습 경험에서 나타난 예비 교사의 영아에 대한 이해과정의 교육적 의미,” 유아교육학논집, 제13권, 제1호, pp.249-269, 2009.
- [31] 이희경, “유아교육과 학생이 유치원 현장실습과 보육실습기간에 경험하는 유아교사의 역할,” 영 유아교육연구, 제14권, pp.41-55, 2011.

저 자 소 개

임 경 옥(Kyung-Ok Lim)

정희원



- 1986년 8월 : 강남대학교 특수교육학과
- 1998년 2월 :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06년 2월 : 강남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1년 2월 : 단국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 특수교육 및 보육 실습, 가족지원